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1·2

2014 <http://www.ucac.or.kr>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 C / O / N / T / E / N / T / S

---



03 **茶 한 잔을 마시며** | 갑오년 새해 아침에

04 **기획공연** | 뮤지컬 노트르담 파리  
김혜자의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  
2014 이무지치 신년음악회  
재즈 박주원 콘서트



10 **울산시립예술단 공연** | 시립교향악단 기획공연  
시립교향악단 제171회 정기연주회  
시립시립합창단 제87회 정기연주회  
시립무용단 기획공연

18 **기획전시** | 올해의 작가 개인전 · 2014  
2014년 기획전시  
새해맞이 소망 등불전



24 **예술을 말하다** | 예술의 축제를 찾아서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재미있는 미술여행  
오페라의 거장 리하르트 바그너(vii)

32 **공연·전시가이드** | 1·2월의 공연·전시

---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4년 1·2월호 통권 171호

발행처 |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 (달동 413-13)  
T.052-226-8241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발행인 | 이형조 편집인 | 안종철

기획·편집 | 박용하, 고순영

편집 | 박용운, 박영진, 권혁민, 김내영

디자인·제작 | 예성인쇄기획 T.052-227-3884

---



## 갑오년(甲午年) 새해 아침에



울산문화예술회관장  
이형조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에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려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두루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품격 높은 시립예술단 공연과 창작뮤지컬 태화강의 국립극장 초청공연의 성과에 이어 재미와 감동이 있는 맞춤형 기획공연을 비롯하여 공공성과 예술성을 강화한 기획전시는 관객과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예술, 새로운 상설 전시장 “쉽”의 개관과 함께 올해의 작가 개인전 기획 전시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3개 기관단체와 협약체결을 통한 문예회원 확충사업, 전국 최초로 시립예술단 보유의상을 지역 예술인에게 무료로 대여해줌으로써 지역예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으며 다양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각 분야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친숙한 예술의 전당 구현이라는 역점 사업들을 성심을 다해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울산문화예술회관이 개관 19주년을 맞게 됩니다. 1995년 10월 5일에 개관하여 그동안 다양한 사업들의 추진으로 발전적인 변화를 이루었으며 또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선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과 지역예술인들로부터 사랑받는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제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나아가는 창조적 예술 활동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전환점에 섰습니다. 지나온 19년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창조적으로 준비하는 갑오년이 될 것입니다.

올 한해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공연·전시 추진과 창의적인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지역예술 발전의 견인차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창조적 기획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융합하는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시립예술단으로 더욱 발전하여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울산문화예술회관의 2014년은 문화예술의 감동과 환희가 넘쳐나는 순간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며, 시립예술단은 완성도 높은 예술작품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예술단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희망이 희망을 낳습니다. 희망의 결실이 함께하는 2014년을 위해 문화예술로서 시민들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다시금 기원 드립니다.

2014년 1월





프랑스 뮤지컬의 중심, 그 돌풍의 시작!

# 노트르담드파리

NOTRE DAME DE PARIS  
By Special Arrangement with ENZO PRODUCTS

2014. 1. 17(금) 오후 19시30분, 1. 18(토) 오후 15시/19시, 1. 19(일) 오후 14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출 연 : 홍광호, 윤형렬, 윤공주, 문혜원, 전동석, 정동하, 최민철, 조휘  
문종원, 박은석, 김성민, 이정화, 안솔지
- 입장권 : V/130,000 · R/110,000 · S/80,000 · A/60,000  
(회원 20%, 단체(00인 이상) 10%할인 적용) 1599-1980(전화예매가능)
- 등 급 :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

1998년 프랑스 파리 초연 이후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 관람하고 국내에서도 수많은 마니아 층을 양산했던 프랑스 대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5년 만에 울산을 찾아온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15세기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이방인이었던 집시 여인을 사랑한 꼽추 과지모도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다룬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동명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극작가 플라몽동과 유럽의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 코치안테 등 세계 최고의 예술가들이 만들어 낸 <노트르담 드 파리>는 주옥같은 넘버들로 현재까지 1,200만 장의 경이적인 OST판매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노트르담 대성당을 상징하는 대형 무대세트(길이 20m, 높이 10m)와 100kg 이 넘는 대형 종들, 감옥을 상징하는 쇠창살, 움직이는 기둥과 가고일 석상 등 30톤이 넘는 세트와 무대미술까지 남다른 스케일과 예술성을 자랑한다. 2005, 2006, 2011년 세 차례의 오리지널 내한 공연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역대 최다 관객을 기록하기도 했던 이 작품은 2007년 한국어 버전으로 초연되며 국내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으나 라이선스가 종료된 2009년 이후로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한국어 무대를 만날 수 없었다. 그로부터 5년 후, 팬들의 식지 않은 열망에 대한 화답으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한국어 라이선스 버전이 다시 울산을 찾아온다. 한국 무대에 오랜만에 돌아오는 라이선스 공연이니만큼 예술감독 웨인폭스와 안무가 마르티노폴러 등을 비롯해 프랑스 오리지널 스태프들이 캐스팅 단계부터 모든 과정에 참여해 작품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Synop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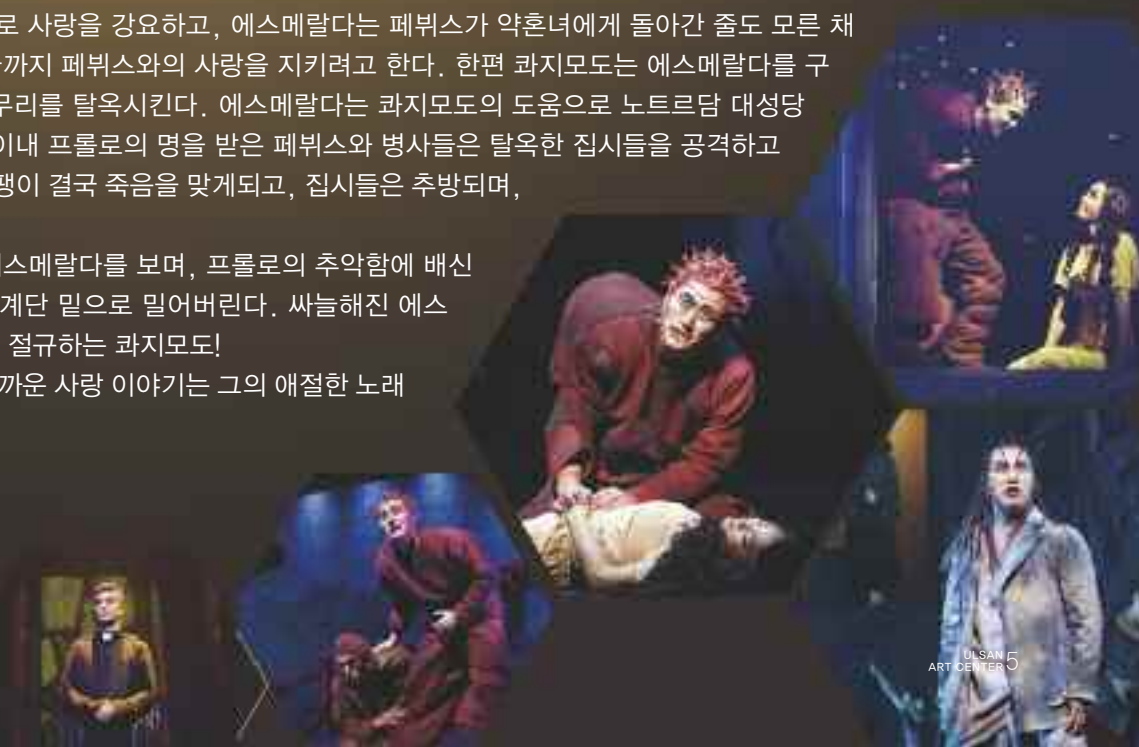
이야기는 파리의 음유시인 그랭구아르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서곡으로 시작된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주교 프롤로는 어릴 적 버려진 꼽추 과지모도를 성당의 종지기로 키워 충직한 종으로 삼는다. 성당 앞 광장에 모여 사는 집시들. 그곳에 클로팽과 아름다운 여인 에스메랄다가 산다. 프롤로 주교는 에스메랄다의 춤추는 모습을 우연히 본 후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어 가는 자신의 모습에 당황하고 갈등한다. 욕망에 흔들리던 프롤로는 과지모도에게 에스메랄다의 납치를 명한다. 과지모도가 에스메랄다를 납치하려는 순간, 근위대장 페뷔스가 나타나 그녀를 구하고 과지모도를 체포한다. 페뷔스는 플뢰르 드 리스와 이미 약혼한 사이지만, 에스메랄다에게 첫 눈에 반해 사랑에 빠진다.

체포된 과지모도는 바퀴형틀에 묶여 애타게 물을 찾지만, 모든 군중과 그의 주인 프롤로마저 조롱하고 외면한다. 이 때 에스메랄다가 나타나 과지모도에게 물을 건네고 과지모도는 에스메랄다의 따스한 손길에 감동한다. 에스메랄다를 향한 안타까운 사랑의 과지모도, 집착의 프롤로, 욕망의 페뷔스, 이들이 부르는 삼색의 노래...아름답다(Belle)!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과 질투심에 눈 먼 프롤로 주교는 에스메랄다를 만나러 가는 페뷔스를 미행하여 그를 칼로 찌르고, 에스메랄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둔다. 이를 모르는 과지모도는 종치는 일도 잊은 채 슬픔에 잠겨 헤맨다. 한편, 클로팽과 집시들은 도시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페뷔스에게 체포된다. 칼에 찔렸으나 목숨을 건진 페뷔스는 약혼녀 플뢰르 드 리스에게 돌아가고 플뢰르는 페뷔스에게 에스메랄다를 교수형 시킬 것을 요구한다. 프롤로는 감금한 에스메랄다에게 목숨을 담보로 사랑을 강요하고, 에스메랄다는 페뷔스가 약혼녀에게 돌아간 줄도 모른 채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라도 끝까지 페뷔스와의 사랑을 지키려고 한다. 한편 과지모도는 에스메랄다를 구출하기 위해 클로팽과 집시 무리를 탈옥시킨다. 에스메랄다는 과지모도의 도움으로 노트르담 대성당으로 안전하게 피신하지만, 이내 프롤로의 명을 받은 페뷔스와 병사들은 탈옥한 집시들을 공격하고 에스메랄다를 지키려던 클로팽이 결국 죽음을 맞게 되고, 집시들은 추방되며, 에스메랄다는 다시 체포된다.

과지모도는 교수형 당하는 에스메랄다를 보며, 프롤로의 추악함에 배신감을 못 이겨 결국 프롤로를 계단 밑으로 밀어버린다. 싸늘해진 에스메랄다의 주검을 부둥켜 안고 절규하는 과지모도!

파리를 배경으로 펼쳐진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는 그의 애절한 노래로 막을 내린다.





# 김혜자의 모노드라마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



백혈병에 걸린 열 살 소년  
오스카와 소아 병동의  
외래 간호사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장미 할머니의 나이를 넘어서는  
우정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김혜자 의 모노드라마

2014. 2.12(수) 오후 8시  
2.13(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연 출 : 함영준
- 출 연 : 김혜자
- 입장권 : 전석3만원(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할인 적용)
- 등 급 : 초등학교이상 입장가능

배우 김혜자 가 2012년 시트콤 <청담동 살아요> 이후 약 1년 만에 김혜자의 모노드라마<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제작\_YK엔터테인먼트(주), CJ E&M(주))를 통해 팬들에게 돌아온다. 11월 15일 개막하는 이 연극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공연된 연극<다우트> 이후 6년만의 외출이다. 공연시간 100분 동안 1인 11역 (오스카, 장미할머니, 폐기, 친구들-팝콘 엄마, 아빠, 의사, 간호사, 폐기의 부모님)을 소화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연습에 매진 해 온 김혜자 의 모노드라마<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가 막바지 연습장면 공개로 그시작을 알렸다.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연습실에서 개최된 김혜자 의 모노드라마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 리허설 공개행사에서 배우 김혜자 는 풋풋하고 싱그러운 첫사랑에 빠진 사춘기의 오스카를 연기했다. 김혜자는 시연회가 진행되는 도중 “빛과 고요함으로 가득한 신비로운 폐기블루”를 향한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과 경쾌한 왈츠로 들뜬 마음을 표현하는 등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볼 수 없었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스크린과 무대에서는 평소 TV에서 자주 보여주는 ‘어머니’의 이미지보다는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혼자서 11역을 연기하는 것은 매우 힘든 도전이고 극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작업이지만, 나는 이 공연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오스카의 마지막 12일간의 일상을 통해 ‘삶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아름다운 것인지’의 의미를 전하고 싶다.”

고 말한 김혜자 는 “3개월간의 연습 기간은 나 역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제 관객들과 함께 나눌 때이다.”라고 얘기하며 공연 오픈에 대한 설레는 마음을 전했다.

인터뷰에 참석한 연출가 함영준 은 “작품의 저작권을 획득 한 순간부터 주인공으로는 김혜자 씨 이외의 주인공을 생각 해 본적은 없다. 그 어떤 70대의 여배우가 10세의 소년부터 30~40대의 부모,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노인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겠는가. 천진함과 관록을 함께 갖춘 김혜자씨는 최고의 배우다.”라고 말하며 배우 김혜자 가 풀어갈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매일 처음 본 느낌 그대로 삶을 바라 볼 수만 있다면...

첫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순간순간이 새롭고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라고 이 작품은 말한다.

빌린 것이니까 잘 써야 한다고 ... ..

- 배우 김혜자

오스카는 백혈병에 걸린 10살짜리 소년이다.

수술 후 더 이상 아들의 회생 가능성이 없음을 알게 된 오스카의 부모님은 죽음을 앞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 당황스러워 하고 담당 의사선생님도 오스카의 죽음이 마치 자신의 실수 때문인 듯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오스카를 바라 본다.

그런 어른들의 행동에 실망을 느낀 오스카는 다른 어른들과 달리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프로레슬링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려주는 장미 할머니와 깊은 애정과 신뢰를 쌓아가면서 하루를 10년처럼 살면서 할머니와의 약속대로 하나님에게 편지를 써나간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팝콘, 베이컨, 아인슈타인, 폐기 블루 등과 같은 다른 아이들과 우정과 추억을 쌓아가는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차츰 벗어나게 된다. 동시에 부모님을 “겁쟁이”라 부르며 삶에 대해 조소하던 오스카의 시선은 어느덧 경탄으로 가득한 시선으로 바뀐다.

# 비발디 사계(四季)의 첫감동으로 새해를 맞이하다!



실내악의 전설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비발디 사계의 대명사인 이 무지치가 2014년 1월 신년에 맞는 레퍼토리를 가지고 전국 순회공연을 가진다. 완벽한 하모니와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매너로 모든 공연에서 최고의 갈채를 이끌어내는 이 무지치는, 공연 최고의 무대매너와 연주로 매 공연 관객으로 부터 기립박수를 이끌어 내며 세계 최고의 실내합주단으로서의 명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무지치가 들려주는 화려하고 밝은 음악을 통해 새해의 새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 Program – Simply Baroque

Program : Simply Baroque

Corelli – Concerto Grosso in D major op. No.4

Vivaldi – Concerto for 2 Violins and Cello in D minor  
op.3 NO.11

Vivaldi – Concerto for Strings in D minor RV123

Geminiani – La Follia

Vivaldi – “The Four Seasons”, from “The Contest of  
Harmony and Invention”

Soloist : Antonio Anselmi (violin)

2014. 1. 15.(수)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입장권 : 전석 3만원 (회관회원 30%,  
단체(10인이상) 20% 할인,  
초·중·고생 50% 할인)
- 등 급 :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



## 박주원 기타콘서트

## “No.3”

최근 아이유의 새앨범 ‘모던타임즈’에 함께 작업 한 박주원은 한국에서 가장 바쁜 기타리스트이다. 박주원이 기타를 연주한 아이유의 노래 ‘을의 연애’에는 집시 재즈 스타일이 잘 살아있다. 박주원은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장고 라인하르트에게서 이어져 내려오는 집시스윙을 연주하고 있으며 아이유는 그 리듬 위에 능숙하게 올라타 노래하고 있다. 이처럼 가수의 변신에는 연주자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법이다.

박주원은 2009년 첫 앨범 ‘집시의 시간’과 2011년 2집 앨범 ‘슬픔의 피에스타’를 발표하고, 대중음악계에 집시기타 열풍을 일으킨 기타리스트다. 박주원은 3장의 앨범을 통해 화려하면서도 뛰어난 테크닉으로 한국 음악계에 처음으로 집시기타의 진수를 선사했다. 한국에 기타연주 음반은 많지만,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집시기타 음반은 그 전례가 없다. 박주원은 언론과 평단으로부터 “축복처럼 찾아온 뮤지션” “한국 연주음악의 새로운 발견” 등의 절찬을 받았다. 박주원의 1집 앨범은 2009년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선정한 ‘올해의 앨범’에 올랐으며, 같은 해 한겨레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주목할 신인’에 뽑히기도 했다. 2010년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부문을 수상했으며, 재즈전문지 ‘재즈피플’의 리더스폴에서 2010, 2011년 2년 연속 최우수 기타리스트로 뽑히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무크지 ‘대중음악 사운드’가 선정한 ‘루키 오브 더 이어 2009~2010’에서 종합 1위와 연주부문 1위에 올랐다. 2집 앨범 역시 네이버에서 선정한 ‘2011년 올해의 앨범’에 뽑혔으며, 2012년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 ‘최우수 연주’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다.

2011년엔 영국의 팝페라 스타 폴 포츠(Paul Potts)가 자신의 트위터에 박주원을 극찬한 글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폴 포츠는 “박주원이라는 환상적인 한국의 기타리스트를 발견했다”는 글과 함께 박주원의 라이브 동영상을 링크해 주목을 끌었다. 박주원은 임재범의 예능 출연으로 많은 화제를 낳았던 MBC TV ‘우리들의 일밤-바람에 실려’에 기타리스트로 출연했으며, ‘나는 가수다’에도 여러 차례 특별 게스트로 출연했다. 박주원은 20년간의 클래식기타 연주로 다져진 탄탄한 기본기 위에 팝과 재즈의 감수성을 두루 갖춘 한국에서 보기 드문 기타연주자다. 한때 록밴드 ‘시리우스’ 멤버로도 활동했을 만큼 록의 어법에도 능숙한 전방위 연주자다. 박주원은 특히 어쿠스틱 기타 연주에 비범한 재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객석을 압도하는 그의 신들린듯한 핑거링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

객석을 압도하는 신들린 핑거링...  
“축복처럼 찾아온 뮤지션”



2014. 2. 26(수)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출 연 : 박주원밴드
- 입장권 : 전석 3만원  
(회원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 등 급 :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2014년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신년음악회는 이태리 작곡가 『레스피기』편이다. 화려하고 웅장한 사운드와 규모로 무대를 압도할 만한 대편성의 작품으로 2014년 갑오년(甲午年) 울산시립예술단 첫 공연을 울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번 연주회는 새해맞이를 축하하는 의미와 더불어, 울산시민들에게 더욱 더 좋은 음악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울산시립교향악단으로 거듭나는 각오를 다짐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음악회이다.



지휘 / 김홍재  
(예술감독 겸 지휘자)

- 프로그램**
- 쇼스타코비치 축전서곡  
Festive Overture in A major
  -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 1번  
Piano Concerto No.1 in minor op. 23
  - 로마의 분수 "Fontane di Roma"
  - 로마의 축제 "Feste romane"

2014. 1. 24(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지휘 : 김홍재 (예술감독 겸 지휘자)
- 협연 : 박종화 (피아노)
- 입장료 : R/ 1만원,  
S/ 7천원, A/5천원  
(회관회원 30%,  
단체 20% 할인)
- 등급 :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



### 쇼스타코비치 축전서곡

이곡은 1954년 소비에트 연방시절 제37회 혁명 기념일을 기념하여 작곡되어진 순수음악이 아닌 목적음악으로 즐거운 분위기로 넘치는 밝은 내용 때문에 취주악용으로 편곡되어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

### “천둥같이 나타난 한국의 젊은 천재 : 스페인 ABC신문”

#### 피아니스트 박종화가 들려주는 차이콥스키 피아노협주곡 제1번.

“피아노를 칠 때 자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 속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 피아니스트 박종화의 연주는 테크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뛰어난 기량으로 놀라운 연주를 펼친다.” - 세계적인 피아노 음악 평론가 리처드 다이어 피아니스트 박종화는 30대의 젊은 나이로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화제가 된 천재 피아니스트로 울산시립교향악단과도 수차례 협연을 한 바 있는 국내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다.

피아니스트 박종화가 들려 줄 이번 협주곡은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이다. 이곡은 모스크바음악원 교수가 된지 9년째 되던 해인 1874년에 쓰여졌는데 음악원의 원장인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에게 항상 경의를 표하고 있었던 그는 피아노협주곡의 첫 야심작인 제1번을 루빈스타인에게 헌정하고, 그가 초연을 맡아주길 바랬으나, 악보를 검토한 루빈스타인은 협주곡의 상식에 벗어난 졸작이라고 혹평하고는 상당부분을 개작하면 초연을 맡아주겠다는 것이었다.



피아노 / 박종화

격분한 차이코프스키가 이 제의를 거절하고 독일 지휘자겸 피아니스트인 한스 폰 뷔로에게 부탁하였고 그로부터 독창적이고 경탄할 만한 곡이라는 정반대의 평을 받았다. 미국으로 초청받아 건너간 폰 뷔로는 보스턴 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것은 러시아 작품이 국내에서 초연되던 관례를 깨뜨린 최초의 작품이 되었다. 3년 후에 루빈스타인이 차이코프스키에게 사죄하고, 처음에 그를 매도한 것은 그 대곡을 작곡하면서 선배이자 대가인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은 것이 패싯했기 때문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차이코프스키도 니콜라이가 죽은 후에는 일부 수정을 하였었고, 그 후 피아노협주곡 2번, 3번도 작곡되었으나 1번이 가장 유명하며, 오늘날에도 널리 사랑받고 있다.

### 이탈리아 작곡가 레스피기의 3부작 교향시 중 ‘로마의 분수’, ‘로마의 축제’

레스피기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인 3부작의 교향시 ‘로마의 소나무’, ‘로마의 분수’, ‘로마의 축제’ (각 4부) 중 이번 연주회에서는 ‘로마의 분수’와 ‘로마의 축제’가 연주되어진다. 20세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최대 작곡가인 레스피기는 인상파적인 수법과 이탈리아적인 회고주의, 그리고 유럽 스타일을 포함하고 있는 작곡가다. 현대 뿐만 아니라 고대 작품에도 남다른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그가 남기고 있는 작품이나 편곡들은 레스피기 특유의 색감과 스타일을 지니고 있다. 로마3부작이라고 일컫는 이 교향시 모음은 관현악의 시인 ‘레스피기’가 사라진 로마의 영광과 정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작곡했다. ‘로마의 분수’ (1916)는 가장 먼저 작곡 되어진 작품으로 로마에 있는 4개의 분수를 풍부 한 색채감을 살려 서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표제음악이다. 마지막으로 쓰여진 ‘로마의 축제’ (1928)는 매년 로마에서 열리는 4개의 축제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축제의 열기, 정황 등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레스피기의 교향시 ‘로마의 분수’와 ‘로마의 축제’는 오르간, 피아노, 첼레스타, 하프, 만돌린 등이 들어가는 100명이 넘는 대규모 편성의 웅장하고 화려한 작품이다. 이번 연주회는 1월 24일 신년음악회에 이어 대구시민회관 재개관기념으로 주최되는 아시아 교향악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일본 도쿄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대만국립오케스트라>, <중국국립오케스트라>, <KBS 교향악단> 등과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오케스트라의 자격으로 대구에서 연주되어 진다.



제171회 정기연주회

# 스코틀랜드

2014년도 첫 정기연주회로 독일 대표적인 작곡가로,  
 이번 연주회에서는 멘델스존 교향곡 제3번이 연주된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협연자로는 국내 많은 팬층을 확보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을 초청,  
 현란한 바이올린의 기교를 엿볼 수 있는 작품 선사



지휘 / 김홍재  
 (예술감독 겸 지휘자)

- 프로그램**
- 베버 "Oberon" 서곡
  -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Mendelssohn violin concerto in  
e minor Op.64
  - 멘델스존 교향곡 제3번 "스코틀랜드"  
Mendelssohn Symphony No.3  
"Scotch" in a minor , Op.56

2014. 2. 21(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지휘 : 김홍재 (예술감독 겸 지휘자)
- 협연 : 김수연(바이올린)
- 출연 : 예술감독 외  
울산시립교향악단원
- 입장권 : R/1만원 · S/ 7천원 · A/ 5천원  
(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 등급 :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

### - 베버 "Oberon" 서곡

1826년, 40세 때의 작품이며, 기괴한 이야기에 의한 3막 오페라이다. 동화나라의 마왕 오베론이 아내 티타니아와 싸움을 벌인 끝에, 서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화해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한다. 즉, 어떤 고난이나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는 상대를 발견할 때까지는 화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었다. 그리고 많은 파란을 거쳐 왕은 그런 여자를, 왕비는 그런 남자를 발견하고 다정스럽게 화해한다는 줄거리이다. 서곡 베버의 뇌리에 스쳤던 요염하고 아름다운 환상이 모두 이 서곡에 들어 있다고 할 만큼 놀랍도록 뛰어난 서곡이다..

### -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 Mendelssohn violin concerto in e minor Op.64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e 단조"는 그가 평생 동안에 남긴 모든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며, 가장 널리 애창되는 명곡이다. 이 협주곡은 계획에서 완성이까지 여러 해에 걸쳐 신중한 구상을 거쳐 완성된 것은 1844년, 그가 35세 때였다. 그리고 1845년 다비드의 독주로 라이프치히에서 초연되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당시 게반트하우스의 콘서트마스터로 있었던 사람으로, 멘델스존과는 오랫동안 교우 관계를 계속한 사이였다. 그리고 바디드는 멘델스존으로 하여금 이 협주곡을 쓰게 하는 동기를 준 사람이며, 협주 기교에 관한 조언자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 협주곡이 다비드에게 헌정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협주곡에서는 형식상 약간 새로운 창의가 엿보인다. 즉 전3악장이 연속적으로 연주되며 낭만주의 시대의 단악장 협주곡에서 한 발짝 진보했다는 것이 그 하나이며, 제1악장의 독주 카덴차가 재현부 다음에 연주되는 관례를 무시하고 전개부 다음에 둔 것이 그 하나이다. 그러나 악식적으로는 대단히 명료하게 3개 악장이 구분 되어 있으나, 각 악장 사이에는 획기적인 주제적 연관성도 별로 볼 수 없으며, 또 악식적으로도 고전 형식에서 한 발짝도 전진한 것이 아니다.

### - 멘델스존 교향곡 제3번 "스코틀랜드"

#### Mendelssohn Symphony No.3 "Scotch" in a minor, Op.56

이 교향곡이 완성된 것은 오히려 제 4교향곡 "이탈리아"보다 후의 일이다. 1829년에 멘델스존은 전설과 역사와 풍경이 넘치는 스코틀랜드를 여행하고, 그 옛날에 여왕 메리가 살았던 홀리우드 성을 찾아갔다. 중세기 말엽의 로맨틱한 유적은 멘델스존을 몹시 자극해서, 이 교향곡의 첫 악상이 마련된 것이다. 강한 감명은 악상을 높여 겨우 1842년에 완성하고, 같은 해 3월3일에 라이프치히의 게반트하우스에서 스스로 지휘봉을 들고 발표했다.



#### \* 김수연 : 바이올린

클래식 최고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 (DG)이 선택한 아시아의 큰 활 김수연

"최고의 감동, 놀라울 정도로 균형 잡힌 연주, 메마른 감성의 청춘이 아니라면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

바이올린의 여제 정경화가 차세대 거장으로 주목하고, 바이올린의 명가 안나 추마첸코 교수가 제일로 인정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그는 현재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며 유럽 음악계에 보석 같은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2007년 성남 아트센터에서 노장 엘리야후 인발이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과의 협연은 그를 각인 시키기에 충분했다. 당시 장기인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4번을 연주하여 국내 팬들을 열광시켰다. 2006년 정명훈의 서울시향과 협연한 후 김수연의 '음악적 무게'는 매해 달라졌다. 김수연은 2009년 유니버설 뮤직과 전속 계약을 맺었고,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와 비올라와의 듀오가 수록된 첫 번째 <모차르티아나 Mozartiana>를 세계 최고의 클래식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 폰에서 발매하였다.



울산시립합창단 제87회 정기연주회

# 2014 신년음악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로 갑오년 말을 타고 새로운  
시작의 힘찬 도약을 하는 울산시립합창단이  
준비한 새해 신년음악회



지휘 / 구 천  
(예술감독 겸 지휘자)

## 프로그램

- 무반주 혼성합창  
가고파 / 선구자
- 무반주 여성합창  
승무 / 아베마리아
- Baritone Solo(염경묵)
- 남성합창  
염원 / 월정명
- Soprano Solo(이미성)
- 혼성합창  
봄날 / 메밀묵사려

2014. 1. 25(토) 오후 4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지휘 : 구 천 (예술감독 겸 지휘자)
- 특별출연 : Sop 이미성 Bar 염경묵
- 입장권 : 전석 5천원  
(회관회원 30%, 단체 20% 할인)
- 등급 : 만 5세이상 입장 가능





2014년 울산시립합창단은 명실 공히 우리나라 대표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ACDA(American Choral Directors Association\_미국합창지휘자협회) 미국 초청 연주(3월-Des Moines, Iowa(아이오아주 디모인)), 세계합창축제(8월\_서울 예술의 전당) 등 대외공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힘찬 도약의 한 해를 준비하고 있다.

첫 정기연주회로 준비하는 신년음악회는 합창단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무반주 합창을 비롯하여 소프라노 이미성, 바리톤 염경목이 특별출연해 풍성하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연주가 될 것이다.



**\* 소프라노/이미성**

- 독일 Stuttgart 국립음대최고연주자 과정 최우수 (Auszeichnung) 졸업
- 독일 Heidelberg 교회음악대학 성악 전문 연주자 과정 졸업
- 독일 Stuttgart 국립음대 독일가곡과 (Liedklasse) 졸업
- 독일 Inge-Pittler 콩쿠르 1위 입상
-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음악가 공로상 수상
- 독일 Saarbruecken 국립오페라극장 가수 역임
- 독일 SWR Vokalensemble(방송합창단) 객원 역임
- 국립 합창단 정단원 역임
- 오페라 'La Traviata'의 비올레타, 독창회 11회
- 현, 성악 전문 연주가로 활동 중



**\* 바리톤/염경목**

- 서울대 성악과 졸업 및 대학원 수학
- 음협 해외파견 콩쿨, 미국 내셔널오페라협회 콩쿨, 팜비치 오페라, 달라스 오페라 콩쿨 우승
- 메트로폴리탄 내셔널 파이널리스트, 엔리코 카투소, 포트워스 오페라, 리치 알바네제, 리더크란츠 콩쿨 입상
- 현재 울산대학교 음악대학에 외래교수로 재직 중

# 新 비나리

울산시립무용단 기획공연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울산시민들의 태평과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로 악가무(樂歌舞)의 종합 놀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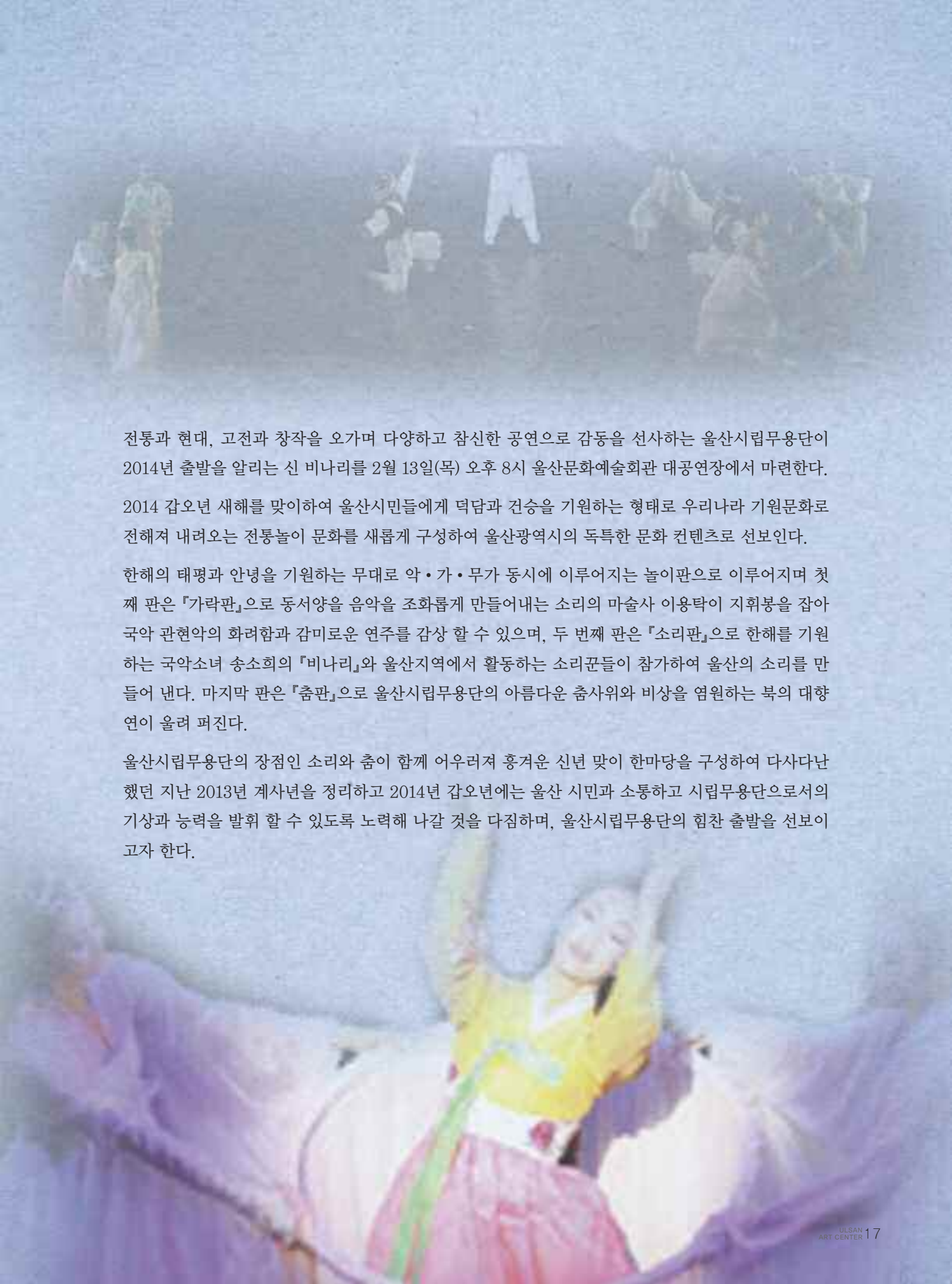
- 프로그램 - 비나리
- 남도민요
- 배 띄워라
- 경기민요
- 태평무
- 비상(북의 대향연)

2014. 2. 13(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안무 및 연출 : 김상덕(예술감독 겸 안무자)
- 객원지휘 : 이용탁(전 국립창극단 음악감독)
- 훈련지도 : 박정은(울산시립무용단 지도자)
- 특별출연 : 오정해, 남상일, 송소희, 이선숙, 박미서 등
- 출 연 : 울산시립무용단 전단원
- 입장권 : R/1만원 · S/7천원 · A/5천원  
(회관회원 30%, 단체 20% 할인)
- 등 급 : 5세이상 입장가

※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일부 수정 될 수 있음



A group of dancers in traditional Korean attire performing on a stage. The dancers are wearing colorful hanbok (yellow, pink, and purple) and are captured in various dynamic poses. The background is a plain, light-colored wall.

전통과 현대, 고전과 창작을 오가며 다양하고 참신한 공연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울산시립무용단이 2014년 출발을 알리는 신 비나리를 2월 13일(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마련한다.

2014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울산시민들에게 덕담과 건승을 기원하는 형태로 우리나라 기원문화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놀이 문화를 새롭게 구성하여 울산광역시의 독특한 문화 콘텐츠로 선보인다.

한해의 태평과 안녕을 기원하는 무대로 악·가·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놀이판으로 이루어지며 첫째 판은 『가락판』으로 동서양을 음악을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소리의 마술사 이용탁이 지휘봉을 잡아 국악 관현악의 화려함과 감미로운 연주를 감상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판은 『소리판』으로 한해를 기원하는 국악소녀 송소희의 『비나리』와 울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소리꾼들이 참가하여 울산의 소리를 만들어 낸다. 마지막 판은 『춤판』으로 울산시립무용단의 아름다운 춤사위와 비상을 염원하는 북의 대향연이 울려 퍼진다.

울산시립무용단의 장점인 소리와 춤이 함께 어우러져 흥겨운 신년 맞이 한마당을 구성하여 다사다난했던 지난 2013년 계사년을 정리하고 2014년 갑오년에는 울산 시민과 소통하고 시립무용단으로서의 기상과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울산시립무용단의 힘찬 출발을 선보이고자 한다.



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 올해의 작가 개인전 · 2014

1월 7월은 합동전

2월부터 매달 1명씩 릴레이 개인전 개최



생명 그 곳<2월 윤은숙작>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3월 박태진작>



청마여락<4월 김영진작>



봄날<6월 김언영작>



깃날<5월 김이란작>



신세한도<8월 김재옥작>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역작가 예술창작지원을 위해 상설전시 공간 “갤러리 씬”에서 추진하는 2014년도「올해의 작가 개인전」의 참여 작가를 공개 모집하여 최종 확정했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실력 있는 작가들에게 창작활동의 동기 부여와 울산 사랑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올해의 작가 개인전」의 취지에 따라 전년도 미술 평면회 화 분야에 한정했던 것을 사진, 서예 장르까지 확대하여 모집했다.

참가자격 기준은 울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19세 이상 50세 미만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작가선정 심사와 전시 추진기간 공개 추천을 통해 총 10명의 작가를 선정 하였다. 선정된 작가들은 미술분야 5명, 사진분야 3명, 서예분야 2명으로, 2월에 윤은숙(서양화), 3월에 박태진(사진), 4월에 김영진(한글), 5월에 김이란(서양화), 6월에 김언영(한국화), 8월에 김재옥(한문), 9월에 고동희(서양화), 10월에 이귀동(사진), 11월에 한진숙(문인화), 12월에 박성란(한국화) 작가다. 따라서, 1월과 7월에는 상 하반기의 참여 작가들이 합동 전시를 추진하고 2월부터 매달 1명씩 릴레이 형식으로 개인전이 개최 된다.

2월의 작가 윤은숙은 “생명, 그 곳”이라는 주제로 꽃에서 인간적 생명을 느끼며 작품과정에서 계산되지 않은 뿌리기 기법으로 번지고 겹쳐짐으로 보이지 않는 생명의 확장에 대한 보여주기를 표현하고 있다. 3월의 작가 박태진은 작품 안에 슬픔, 사랑, 외로움, 이별, 상처 등 작가 자신의 철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 속 이야기에 빗대어 사진작품으로 보여 준다. 4월의 작가 김영진은 한글 문자가 지닌 향기를 강렬하면서 울림이 깊은 문자로 표현하여 서예

특유의 정신적인 부분을 예술적 아름다움으로 표현 하고 있다. 5월의 작가 김이란은 “아름다운 그대”라는 주제로 ‘아줌마’ 라는 소재를 통해 사건의 연속으로 무겁고 지겨울 수 있는 일상들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미술작품들을 선보인다. 6월의 작가 김언영은 “부귀영화 누구나 꿈꾸다”라는 주제를 탐스러운 꽃 망울과 돼지들의 놀이로 표현하여 이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관람객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8월의 작가 김재옥은 한글, 한문 자작시 등을 작가 자신의 고향인 울산에 관련된 글들을 지필묵의 전통방법으로 작품화하여 보여줌으로서 울산에 사랑하는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9월의 작가 고동희는 한국의 전통문양들을 독특하고 색다른 기법과 현대적인 표현방법으로 작품을 재구성하여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아 전통 계승에 대한 관심과 국수적인 마음들을 엿볼 수 있다. 10월의 작가 이귀동은 꿈과 희망, 슬픔 그리고 절망을 같이하는 바다의 다양한 모습과 오늘날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 주기도 하는 다양한 사진작품들을 선보인다.

11월의 작가 한진숙은 매향을 염색 천에 가득담은 한국화 작품을 선보여 삭막하고 획일화된 고층건물의 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매화의 향기로 힐링 할 수 있는 장이 마련해 준다. 12월의 작가 박성란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어나는 무한 생산과 소비, 현대인들의 욕망을 비롯한 집착까지 창조된 결과물로 보고 기계의 재생산되는 순환의 과정을 인간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부족한 전시공간을 해소하고 지역의 유망작가들을 발굴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 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올해의 작가 개인전」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을 배출하는 장으로 확산되어 나아가고 울산 전시에술 발전에 밑거름이 마련되는 전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지역 작가들의 용기와 희망이 되도록 울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대한다.



결(9월 고동희작)



바다 갈매기(10월 이귀동작)



옛 추억(11월 한진숙작)



이종 011346-23(12월 박성란작)



상설전시장 전경



지난해 합동전 개막행사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 2014년도 기획전시

**적극적인 지역작가 창작지원 전시 확대  
현대미술의 향연과 다양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기획전시를 추진하고 있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은 2014년 기획전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에는 한국 근·현대미술의 역사를 정리하는 대형기획전시「한국 현대 미술 특별전」과 전국 작가들과의 교류의 장 마련과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의 지 고취에 기여한「한국 문인화 초대전」, 「전국 구상회화 초대전」, 열린문화공간을 지향하며 확대 추진한「야외조각 상설 초대전」, 실력 있는 지역작가들을 발굴 지원하고자 마련한「올해의 작가 개인전」, 지역작가의 창작지원과 연말연시 색다른 볼거리 제공을 위한「새해맞이 소망 등불전」등 다양한 기획전시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내년에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전국 우수 작가들의 작품을 초청하는「한국 구상미술 초대전」, 평면, 영상, 설치 등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통해 한국미술의 현 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빛의 현대 미술전」, 국내·외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세계 청년작가 비엔날레 울산전」, 지역예술 창작지원을 위한「올해의 작가 개인전」, 「지역 작가 초대전」, 「야외조각 상설 초대전」,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동·서양 디지털 미술전」등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첫 기획전시는「한국 구상미술 초대전」으로 문을 연다. 1월 24일부터 전시장 전관에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울산 등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견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모든 연령층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구상미술 작품 전시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미술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7월에는 지난 4년간 한국미술 거장전을 통해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작품들을 소개했던 기획을 한층 심화시켜 주제 중심의 현대미술작품 전시「빛의 현대 예술전」이 제1전시장에서 한달간 열린다.

‘빛과 예술의 만남’을 주제로 오경환, 하동철, 우제길 등 유명 원로 화가에서부터 현대미술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한샘마, 해외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오상욱, 강용면 등 세대를 아우르고 평면, 영상, 설



빛의 현대 예술전 우제길 작<Light 5B>



빛의 현대 예술전 강용면 작<온고지신>



야외조각전



기획전시 '한국 구상미술 초대전'



미술교육 현장



기획전시 단체관람

치미술까지 확대하여 풍성한 현대미술의 향연이 펼쳐질 것이다. 일반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전시작품 관람해설」도 함께 운영하여 현대 미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낮추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관람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학생들의 단체관람은 사전에 접수를 받아 별도의 시간에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여 창의체험 학습의 장으로도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에는 국·내외 역량 있는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현대미술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는「세계 청년작가 비엔날레 울산전」이 전시장 전관에서 펼쳐진다.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가 수도권에 편향되어 있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방의 유망작가들에게 창작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해외 작가들에게는 한국과 울산을 홍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12월에는 전시장 전관에서「지역 작가 초대전」을 추진하여 문화도시 울산의 기틀을 다져온 지역의 원로작가들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지역 전시예술 발전과 기틀을 다지고 있는 각 단체들의 상호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울산 전시예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장차 우리 울산을 대표하는 작가를 육성하고자 올해 6월부터 의욕적으로 시작한 지역작가 창작지원 프로젝트「올해의 작가 개인전」은 내년에 총 10명의 작가를 선정하여 상·하반기 합동전 개최와 함께 연중릴레이 형식으로 개인전이 열린다. 올해 미술부문으로 한정하여 모집했던 것을 내년에는 사진, 서예부분까지 확대 모집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예술의 숲 야외전시장에서는 야외조각 전시가 연중 상설로 열린다. 전국과 지역작가들의 다양한 야외조각품이 전시될「전국 야외조각 초대전」은 2월부터 총 3부로 나누어 진행 된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야외조각 작품과 함께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일상의 여유를 선사할 것이다.

다양한 전시와 함께 동·서양미술사를 디지털로 복제한 작품을 직접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체험형 미술교육 프로그램「동·서양 디지털 미술전」이 5월에 마련된다. 동·서양을 구분해서 배웠던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동시대의 흐름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시민들의 열린 문화 사랑방인 예술회관은 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면서 소통하고 공공 전시장으로서의 전문성 있는 기획전시를 추진하여 지역 전시예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는 생각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 새해맞이 소망 등불展

12. 27(금) ~ 2014. 1. 7(화)  
12일간, 제1전시장

## 《부대행사》

- 행사명 : 가훈 써 주기
- 기간 : 12. 28(토) ~ 2014. 1. 6(월), 10일간, 14:00~17:0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

## 서예와 등불이 만나 설치작품으로 보여주는 색다른 전시회 전시기간 중 <가훈 써 주기> 행사도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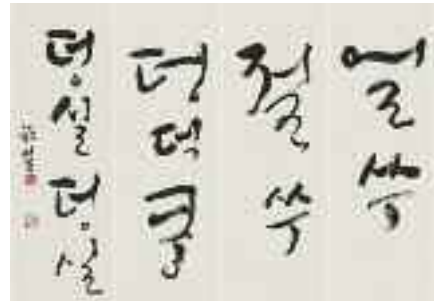
울산문화예술회관은 한해를 갈무리하는 12월 끝자락에 새해에는 희망차고 밝은 한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뜻을 담아「새해맞이 소망 등불전」을 울산서예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지역작가 예술창작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전시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새해 1월 7일까지 12일간 전시되며 신년 덕담을 주제로 한 한글, 한문, 문인화 등 다양한 서예 등불작품 총 200점이 전시된다.

묵향 가득담은 서예작품 800장을 조명등기구를 이용한 다양한 크기의세로형 등불작품으로 제작되어 전시장 실내 공간 상부에 입체로 설치 하는 이색전시로 서예 전시의 새로운 방향성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동안 평면 작품에 국한 되었던 정적인 서예라는 고정 관념의 틀을 벗어나 실내 공간을 활용하고 설치 개념을 도입하는 발상의 전환과 우리 전통의 묵향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한편, 전시기간 중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가훈 써주기> 행사를 진행한다. 지역의 원로 서예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휘호를 실시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전시장을 방문하면 가훈을 받을 수 있다.

“새해 소망을 가득 품고 은은한 조명을 발산하는 등불 서예작품들이 빛어낼 묵향의 아름다움에 시민여러분을 초대 하오니 바쁜 일상 속에서 서연말연시 차분한 한해를 보내며 새해를 설계해 보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기대한다.



새해에도 덩실덩실 <한얼 이상문 작>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첨열 조동래 작>



빛의 환희 <승경 이재영 작>



기획전시 <예술의 숲 야외서예전>



새와 꽃 이야기<수산 이종균 작>



나옹선사시 <종보 이종민 작>



# Arts Friend

---

**Part.1** 예술을 말하다  
예술축제를 찾아서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오페라의 거장 리하르트 바그너(vii)

**Part.2** 1·2월의 공연·전시  
1·2월의 공연·전시 일정



## 겨울에도 지극한 특이 없는 런던 |

요즘 주위를 보면 겨울에도 유럽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다수 유럽 국가는 여름에 밤 9시가 돼도 해가 지지 않는 데다 여름철 빼어난 자연 환경과 도시미관을 이용해 다채로운 페스티벌을 마련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여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어디까지나 편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여행도 여름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가 일찍 지고 날이 춥긴 하지만 겨울은 겨울 나름의 멋이 있으니까요. 특히 겨울 여행지로 런던을 생각한다면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오후 4시만 되면 해가 저서 어두워지지만, 기압이 낮아 항상 몸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칼바람과 강추위는 없어요. 겨울 평균 기온이 대부분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눈도 거의 오지 않는걸요. 게다가 문화강국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각종 페스티벌과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이 넘쳐 나고, 다 헤아릴 수도 없는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입장료도 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가 일찍 지는 만큼 런던의 아름다운 야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고, 해가 진 후에도 즐길 거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겨울의 런던은 그 단점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행지가 된답니다.

### 문화강국 영국, 문화수도 런던

혹시 2012년 런던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을 보셨나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섬은 즐거운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해 문을 연 행사에는 비틀즈, 해리포터, 제임스 본드,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 조지 마이클, 콜드 플레이, 뮤즈, 미스터 빈, 베컴, 나오미 김벨, BBC까지 영국이 낳은 문화 아이콘이 총동원됐는데요. 문화강국 영국을 가장 잘 표현한 퍼포먼스였다고 생각합니

다. 영국을 대표하는 건물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사원(Westminster Abbey)이 있는데요. 영국 왕들의 대관식 장소로,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이 결혼식을 올렸던 장소기도 합니다. 무척 화려하고 정교하게 꾸며진 내부에는 역대 왕들은 물론이고 셰익스피어와 찰스 디킨스, 제인 오스틴, 뉴턴, 다윈, 헨델 등의 묘소가 있는데요. 역사 속의 인물들과 마주하는 벽찬 마음과 함께 스스로 ‘대영(Great Britain)제국’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베이커 스트리트에 가면 추리소설로 만났던 명탐정 셜록 홈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홈스의 사무실이 그대로 재현돼 있는가 하면 홈스를 모델로 한 다양한 서점과 카페, 기념품 가게들이 있어요. 애비로드에 가면 비틀즈가 걸었던 거리와 스튜디오를 만날 수 있고, 노팅힐에 가면 포토벨로 마켓을 따라 영화 <노팅힐>과 8월 말에 열리는 <노팅힐 카니발>이 떠오릅니다. <노팅힐 카니발>은 1966년 이후 해마다 열리는 거리축제인데요. 축제 기간은 이틀에 불과하지만, 축제가 열리기 전부터 춤이나 음악, 밴드 공연 대회가 열리고 다양한 의상과 특수분장을 선보이는 이벤트가 이어지기 때문에 8월 노팅힐은 연일 축제 분위기로 뜨겁지요. 세계 각지의 전통 음식을 만날 수도 있고요. 문화강국 영국, 그 수도 런던답지요? 자, 그럼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런던에서 어떤 것부터 해보시겠어요?

### 웨스트엔드에서 만나는 세계의 뮤지컬

뮤지컬을 좋아한다면 런던에서 한 달을 살아도 모자랄 겁니다. 흔히 뮤지컬의 양대 시장은 뉴욕의 브로드웨이와 런던 웨스트엔드를 꼽지요. 과거 런던의 서쪽 끝 지역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의 레스터스퀘어 일대입니다. 이곳에서는 연중 수많은, 그것도 세계적인 작품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대에 오르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공연장마다 빈자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한 작품을 수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공연하기 때문에 공연장 자체가 하나의 관광명소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페라의 유령>은 1986년 10월 ‘히 마제스티스 극장’에서 초연됐는데, 지금도 같은 무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100년이 훨씬 넘는 공연장은 좌석이 좁고 말굽형이라 시야제한도 있지만, <오페라의 유령>에 딱 맞아떨어지는 기품과 자긍심이 있지요. 한국 여행객들에게는 <오페라의 유령>를 비롯해 <레미제라블> <싱잉 인 더 레인> <스릴러 라이브> <위 윌 록 유> <맘마미아> <라이언 킹> 등이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고, 최근에는 <위키드> <빌리 엘리어트> <마틸다> <더 위> <보디가드> 등도 크게 인기입니다. 2013년에 영화를 뮤지컬로 만든 <윈스>와 <찰리와 초콜릿 공장>도 현지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한두 작품을 꼽아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는데, 그럴 때면 참 난감합니다. 즐기차게 이들 공연장을 찾았지만 작품마다 재미도 다르고, 각자 취향도 다르니까요. 확실한 건 장기 공연되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겁

니다. 하지만 일주일 휴가로 런던을 찾았다면, 저라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작품을 보겠어요. 예를 들어 <마틸다>는 무대를 정말 알차게 활용하는 배우들의 춤과 노래가 놀랍고, <더 위>는 실제 크기의 모형 말을 살아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게 신기합니다. 무대 위에 모형 말을 조정하는 세 사람이 보이는데도 살아 있는 말로 깜빡 속게 된다니까요. <보디가드>는 최근에 개막한 뮤지컬 중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인데, 영화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내용 이해도 쉽고 무엇보다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신나게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영어로 진행되는 공연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무대 연출이나 의상, 특이한 소품, 배우들이 무대를 활용하는 방식을 보면 왜 세계의 예술가들이 런던으로 몰려드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 영화와 공연의 중심 레스터스퀘어

레스터스퀘어(Leicester Square)에는 'tkts'라는 공식 티켓 박스가 있는데, 런던에서 공연되는 대다수 작품의 티켓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할인가에 나오는 티켓도 살 수 있는데, 주위에 '반값 티켓'이라는 구호를 내건 사설 업소들도 많아요.

티켓을 미리 예매하고 싶다면 티켓마스터 (<http://www.ticketmaster.co.uk>)나 씨티켓스(<http://www.seetickets.com>)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그런데 레스터스퀘어는 영화의 중심지이기도 해요. 이곳에 몇몇 유명 극장이 있는데, 심심치 않게 영화 제작발표회나 시사회를 열거든요. 대낮부터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경찰들이 서 있을 때면 엉락없이 세계적인 영화배우들이 찾아옵니다. 덕분에 뜻하지 않게 휴잭 맨, 러셀 크로우, 앤 해서웨이, 톰 크루즈, 브루스 윌리스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다지 크지도 않은 레스터스퀘어는 그야말로 인산인해가 되는데요. 시야확보를 위해 사람들과 사투를 벌이다 배우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려오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세계 문화의 중심 런던에 있구나!

### 발레, 오페라, 연주회? 원하는 공연은 뭐든지!

런던에 뮤지컬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계적인 수준의 발레와 오페라, 클래식 연주회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습니다. 레스터스퀘어 인근에는 콜로세움(The Coliseum)이 있는데 낮 공연에도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수준 높은 발레와 오페라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리허설 공연을 오픈하기도 하고, 관객과 대화하는 시간도 마련합니다. 런던의 대표적인 마켓인 코벤트 가든에는 구경거리가 많아 현지인들과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는데, 쇼핑에 큰 관심이 없는 저도 자주 이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로열 오페라하우스가 있거든요. 일 년 내 무척 다채로운 작품이

무대에 오르는데, 두 작품이 요일별로 번갈아 공연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작품을 보러 왔다 내일 저 작품까지 봐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는 마케팅이죠. 저도 발레 <오네긴>과 오페라 <유진 오네긴>을 번갈아 본 적이 있습니다. 왕립인 만큼 공연의 퀄리티는 그야말로 환상적이고, 덕분에 인기 있는 작품은 밥 먹듯이 매진됩니다. 앤젤역 근처 '새들러스 웰(Sadler's Wells Theatre)'이라는 극장에서는 댄스 중심의 공연이 많은데, 매튜 본이 새롭게 해석한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초연이 펼쳐졌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갈 다채로운 공연의 첫무대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런던에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런던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공연장이 있는데 바로 로열 앨버트 홀(Royal Albert Hall)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 알버트 공이 '예술과 과학의 가치'를 나누겠다는 취지로 건립을 시작했는데, 그가 사망하면서 작업이 중단됐다 결국 1871년 3월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문을 열었어요. 이 공연장은 원형인데, 앞쪽에 보면 대로 건너 앨버트 동상을 마주한 채 처마가 달린 입구가 보입니다. 그곳이 바로 왕족들이 드나드는 문. 로열패밀리를 위한 대기실, 박스형 객석에까지 바로 연결되죠. 로열 앨버트 홀은 바그너와 베르디, 엘가 등이 처음 영국에서 그들의 작품을 선보인 곳이고, 비틀즈, 지미 헨드릭스, 레드 제플린, 에릭 클랩튼, 스팅 등 전설적인 뮤지션들도 무대에 선 곳이지만, 농구나 복싱, 테니스, 심지어 육상 경기까지 치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대중과 함께 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라는데,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의 경우 여전히 대중가수들의 공연은 불허하고 있죠? 이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로열 앨버트 홀의 경우 재정난에 부딪히면서 상당수 좌석을 팔았는데, 몇 년 전에는 10인용 박스 하나가 120만 파운드에 팔리기도 했어요. 대부분 로열패밀리들이 사들인다고 하는데, 엘튼 존도 박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곳에서는 특히 매해 여름, 7월 중순부터 두 달 동안 BBC가 주최하는 <더 프롬스(The Proms)>라는 클래식 축제가 열리는데, 벌써 100회를 넘긴 이 페스티벌은 프로그램 수준이 높은 데다 가격도 저렴해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런던의 즐길 거리, 아직 못 다한 얘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다음 편에 마저 해드려야겠네요!

### 글 윤하정

KBS 앵커, TBC 방송기자등 방송활동과 YES24공연매거진등의 공연리뷰 및 인터뷰 기자로 활동 하였으며 <지금 당신의 무대는 어디입니까>를 저술하고 현재 영국 유학중이며 유럽 공연기행을 준비 중이다.



## 빈 신년 음악회에서 한해 희망을 품다

언제부터인가 새해가 되면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Wien Philharmonic Orchestra)의 신년음악회를 챙겨봤다. 그렇다고 생중계를 본 건 아니고 뒤늦게 KBS1TV를 통해 녹화 중계되는 방송을 즐겨봤다. 사실 1월 1일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오전 11시 15분부터 시작되는 공연이니까 위성 생중계를 통해 본다고 해도 저녁 7시 15분이면 생중계로 공연을 볼 수 있는데 꼭 그때마다 될 했는지 뒤늦게 ‘아차’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빈 필의 신년음악회를 챙겨보게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슈트라우스 일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왈츠와 폴카, 행진곡으로 새해의 활기찬 기운을 느끼고 싶어서다. 솔직히 그만그만한 레퍼토리라 식상하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빈 신년음악회의 앙코르로 연주되는 요한 슈트라우스 1세(Johann Strauss, 1804~1849)의 라데츠키 행진곡(Radetzky-Marsch)을 들으면 정말 신나지 않은가. 지휘자는 이 곡을 연주할 때 객석을 향해 지휘봉을 휘두르고 어느새 클래식은 엄숙해야 한다는 금기를 깨며 박수를 치고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를 이루는 라데츠키 행진곡의 흥겨움이 난 좋다. 그래서 빈 신년음악회를 통해 라데츠키 행진곡을 들어야 정말 새해가 밝았구나 희망차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

돌이켜보면 2000년이 되기 전에는 빈 신년음악회 CD를 구입해 듣거나 비디오를 빌려서 봤다. 상임지휘자를 두지 않는 빈 필의 특성상 매년 내노라하는 명 지휘자들이 지휘봉을 잡고 있지만 내가 특히 좋아했던 버전은 신년음악회를 빈 필하모닉의 악장인 빌리 보스코브스키(Willi Boskovsky, 1909~1991)가 이끌 당시의 음악회였다. 사실 동네의 작은 비디오 가게에서 빈 필의 신년음악회 비디오 테이프를 얼마나 갖고 있었겠는가. 최신의 빈 필 신년음악회 실황 비디오는 잘 없었고 오래된 버



전의 클레멘스 크라우스(Clemens Krauss, 1893~1954)와 빌리 보스코브스키의 비디오만 몇 종 있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그랬던 것처럼 한손에 바이올린을 들고 지휘하다가 객석을 향해 바이올린 연주하며 빈 필을 유쾌하게 이끌던 보스코브스키의 모습은 단번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고 요한 슈트라우스 일가의 작품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표현하는 사람은 단연 빌리 보스코브스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래서 한동안 정말 보스코브스키의 빈 신년음악회를 즐기치게 보던 때가 있었고 후에 시간에 흘러 보스코브스키가 빈 필의 신년음악회를 이끈 1959년부터 은퇴하기 직전인 1979년까지의 25년간의 하이라이트를 엮은 DVD가 나왔을 때 정말 환호하며 구입했던 기억이 있다.

오스트리아는 낙천적인 국민성으로 13세기부터 춤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리고 18세기부터는 귀족과 평민이 한자리에 모여 춤을 즐겼다고 하는데 당시 황제 요셉 2세가 궁정 무도회에 평민 3천명을 초대했다는 기록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춤을 좋아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요한 슈트라우스 부자에 의해 확립된 비엔나 왈츠의 시작도 처음엔 댄스홀과 선술집에서 춤곡을 연주한 데서 출발했다. 요한 슈트라우스 1세는 소수의 밴드 연주로 유명 선술집들을 돌며 춤곡을 연주했고 그러다 저명 인사들이 드나드는 무도회장으로 무대를 넓혀갔다. 사실 왈츠나 폴카에 맞춰 남녀가 어우러져 춤을 추는 무도회는 품위 유지를 하며 적당히 유희를 즐기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무도회 분위기에 맞는 춤곡을 제공하다 그 인기에 힘입어 오스트리아를 넘어 유럽 각지를 순회하며 공연을 하게 됐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왈츠는 춤을 위한 배경음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 아들 요한 슈트라우스 2세(Johann Strauss, 1825~1899)에 이르러 왈츠가 단순한 유희 음악이 아닌 예술음악의 경지로 수준이 올라서게 됐다. 다시 말하면 사교적인 춤곡으로만 생각되던 왈츠가 무도회장 뿐만이 아니라 연주회장에서도까지 공연을 하게 됐는데 아름다운 멜로디에 뛰어난 관현악법으로 브람스가 감동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렇게 왈츠가 하나의 엄연한 음악 장르로 자리했기에 빈 신년음악회가 지금에 이르지 않았을까 싶다.

올해는 다니엘 바렌보임(Daniel Barenboim)이 지난 2009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빈 신년음악회의 지휘봉을 잡는다. 공연을 하기 전부터 온라인 상으로 2014 빈 신년음악회 실황 CD와 DVD의 예약 판매가 진행이 됐고 공연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내년의 지휘자와 연주 프로그램이 공개가 될 거다. 이것이 70여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빈 신년음악회에 보내는 전세계인들의 찬사의 증거고 요한 슈트라우스 일가의 음악에 보내는 존경이 아닐까 싶다. 다니엘 바렌보임이 다소 과장된 표정으로 관객을 지휘하며 기분 좋게 연주해나갈 라데츠키 행진곡을 머릿속에 그리며 2014년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 본다.

글\_김수연

KBS울산 라디오 「러브 클래식」등,  
라디오·TV프로그램 진행 및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 고흐의 첫 걸음마

‘처음’이라는 말은 우리를 설레게 하고, 여기에 큰 의미를 두기도 한다. 첫 만남, 첫사랑, 첫눈, 첫출근,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인사말... ‘처음’이라는 말은 그 말이 앞에 붙는 순간 평범한 일도 특별하게 만드는 마법을 부린다. 이런 ‘처음’의 순간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은 아이가 ‘첫’ 걸음마를 떼는 순간이 아닐까? 화가들도 자신의 아이가 첫 걸음마를 떼는 순간처럼 감동적이고 가슴 벅찬 때는 없었는지, 여러 화가들이 이를 주제로 한 작품을 제작했다.

걸음마를 하는 아이의 모습은 아기 예수의 첫 걸음마를 묘사한 장면을 통해 그려지곤 했고, 특히 17세기의 네덜란드 화가들이 그린 일상 생활을 주제로 하는 그림에 자주 나타난다.

대부분의 서양 고전미술이 성경이나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면 위대한 왕이나 귀족들의 생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비해, 네덜란드의 미술은 조금 다른 성격

을 띠고 있다. 시민 사회가 발달한 17세기에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주제로 한 소위 ‘장르화’라고 하는 그림이 크게 유행했고,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집안에서의 자잘한 일상의 모습, 가족들의 자연스러운 생활도 그림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의 <첫 걸음마>(도판 1)도 이런 전통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흐를 수식하는 말 중 하나가 ‘불꽃같은 삶을 살다 간 화가,’ ‘열정과 광기의 화가’이다. 하지만 사실 그는 젊은 시절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개척교회의 목사가 되기를 꿈꾸었던 순수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할 수 없었고, 가난한 이들과 수입을 나누어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간신히 구한 벨기에의 탄광촌 수습 선교사 자리에서도 쫓겨났다. 그러자 고흐는 화가가 되어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이들에 대한 의무를 일깨워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스물일곱 살이 될 때까지 성직자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했고, 그 다음에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했고, 불과 서른일곱 살에 세상을 떠났다. 그 1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걸작이 태어났다.

널리 알려진 고흐의 작품들은 대개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만큼이나 두드러지는 강렬한 색채로 그려졌지만, 이와 달리 <첫 걸음마>는 흰색과 노란색이 섞인 부드러운 청록색 톤에 드문드문 옐로우색과 황갈색이 들어간 부드럽고 따뜻한 색조로 보는 이들을 어루만진다. 아기와 젊은 부부로 이루어진 가정을 그린 친밀한 장면은 보는 이를 행복하게 한다. 그런데 사실 이는 프랑스 화가 밀레(Jean-François Millet)의 테생을 모사해 그린 것이다(도판 2). <만종>이나 <이삭 줍는 여인들> 등의 작품으로 우리에게도 친근한 화가인 밀레는 풍경을 즐겨 그렸던 동료 화가들과 달리 농사를 지으며 대지와 연결되어 있는 농민들의 생활을 주제로 삼았다. 그가 그린 <첫 걸음마>는 이제 갓 돌이 지났을 아이가 아빠의 품을 향해 첫 걸음을 떼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텃밭을 가꾸다 다정스레 손을 펼쳐 아이를 반기는 아빠와 뒤에서 아이를 잡아주며 조심스레 아이의 첫 걸음마를 돕는 엄마의 모습에서 따뜻한 친근감이 느껴진다.

고흐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밀레를 정신적 스승으로 모셨고, 그를 따라 자신을 농부 화가로 여겼다. 사람들은 그가 그린 수십 점의 농부



도판1.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첫 걸음마, 밀레를 따라 서(First Steps, after Millet)>, 1890. 캔버스에 유채, 72.4x91.1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그림보다 <별이 빛나는 밤>이나 <아들의 밤의 카페>, <자화상> 등을 기억하지만, 그는 평생 동안 농부와 가난한, 낮은 곳에 임한 이들에 대한 애정을 그림 속에 담아 표현했다. 말년에 고희는 자발적으로 생레미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머무는 동안 밀레의 작품을 여럿 베껴 그렸다. 자신만의 작품을 창조하는 것은 아주 힘들고 고된 일이었기에, 정신적인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존경하는 대가들의 그림을 다시 그려보는 것은 그에게도 큰 위안이 되는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이를 완전히 똑같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음악가가 악보를 해석하듯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탄생시켰다. 가령 밀레의 작품은 대부분 연필이나 파스텔로 그린 데생인데, 고희는 이를 유화로 그리며 “색깔이라는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라고 불렀다.

고흐의 <첫 걸음마>는 우리를 농부의 작은 집에 딸린 정원으로 데려 간다. 나지막한 나무 울타리에는 빨래가 널려 있고, 소박한 푸른 옷을 입고 금발 머리를 틀어 올린 농부의 부인은 몸을 숙여 아이가 중심 잡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아이가 아빠를 향해 팔을 뻗고 있고, 챙 달린 오렌지색 모자를 쓴 농부는 왼쪽 무릎을 꿇고 앉아 팔을 활짝 벌려 아이를 맞는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서 아이가 첫 걸음을 떼는 순간은 세상에서 가장 소박한 기적일 것이다. 고희의 그림은 이 순간을 함께 하며, 백여 년 전 프랑스의 시골에 살았던 어느 농부 가족과 이 기쁨을 나누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고흐가 밀레의 작품을 다시 그린 것은 위대한 화가에 대한 존경을 담은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다. 고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동생 테오를 꼽을 수 있는데, 그는 파리에서 화상으로 일하며 형을 후원하고 격려했고, 고희도 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갈 무렵 테오의 부인은 임신 중이었고, 고희는 곧 태어날 조카에 대한 마음을 담아 밀레의 <첫 걸음마>를 모사했다. 고희는 부모님과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못했고, 평생 온전한 의미에서의 가정도 갖지 못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은 그의 마음 한편에 계속 남아 있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동생 테오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삼촌이 된 고희는 세상 누구보다도 기뻐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은 조카에게 그려 선물한 <아몬드 꽃>에 오롯이 담겨 있는 듯하다(도판 3). 마치 우리네 매화처럼 아직 추위가 채가지지 않은 1-2월에 피어나 생명의 기쁨,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는 아몬드 꽃을 통해 삼촌은 새로 태어난 조카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한다.



도판 2. 밀레(Jean-François Millet), <첫 걸음마(The First Steps)>, 1858. 종이에 파스텔과 검은색 콩테 크레용, 32.4x43.2cm, 미시시피 로렌 로저스 미술관.



도판 3. 빈센트 반 고희, <아몬드 꽃(Almond Blossom)>, 1890. 캔버스에 유채, 73.5x92cm, 암스테르담 반 고희 미술관.

#### 글 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리하르트 바그너(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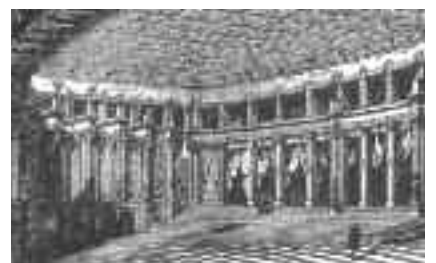
바그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루트비히 왕은 뮌헨 궁정극장에서 프란츠 빌너의 지휘로 1869년 ‘라인의 황금’, 1870년 ‘발퀴레’를 초연하도록 했다. 바그너는 자신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은 전통적인 연출로 ‘링 시리즈’ 전체가 완성도 되기 전에 일부 작품이 공연되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다.

1871년 바그너는 ‘지크프리트’를 완성했다. ‘링 시리즈’의 완성이 다해가는 시점에서 이제 바그너는 자신의 오랜 숙원인 음악극 상연을 위한 축제극장 건립을 위해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바그너는 ‘링 시리즈’를 작곡하기 시작한 1850년부터 이 축제극장과 페스티벌에 관한 착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1863년 공식적으로 처음 출판한 ‘링 시리즈’ 대본의 서문에서도 미래의 페스티벌과 축제극장에 관한 바그너의 상세한 구상이 언급되어있다.

처음에는 페스티벌 개최 장소로 쾰리히, 바이마르, 뮌헨 등을 염두 두었다. 하지만 1870년 지휘자 한스 리히터의 조언에 따라 바이로이트로 마음을 굳히면서 바이로이트의 아름다운 변경백극장(Margraves Theatre)을 축제 공연장으로 쓸 생각이었다. 하지만 1871년 바그너가 아내 코지마와 함께 바이로이트를 방문해보니, 변경백극장은 바로크 음악에 맞게 지어진 곳이라, 자신의 대규모 작품을 공연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들어 자신의 축제극장을 짓기로 결정한다. 1871년 바이로이트 시의회는 바그너에게 축제극장 부지를 제공 결의하였다. 바그너는 이 축제극장을 짓는 일이 작곡자 개인의 꿈이기도 했지만, 독일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데도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나라의 후원을 받고 싶었다. 그리하여 1871년 당시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에게 바그너는 축제극장 건립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비슷한 시기에 루트비히 왕과도 관계 악화되어 축제극장 건립이 난항에 부딪히게 된다. 물론 루트비히 왕과의 관계는 1874년 다시 회복되어 왕으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극장 건립 기금조성을 위한 후원회(Wagner Societies)를 여러 군데 결성하였고, 라이프찌히, 프랑크푸르트를 포함한 독일 전역을 돌면서 바그너는 모금 운동을 하였다. 이렇게 모금한 기금으로는 건립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었다. 본래는 바그너



〈 발퀴레 - ‘브륀힐데’ 〉



〈바이로이트 축제극장 내부:1875년〉

후원회(Wagner Societies)에서 1300명의 후원자를 모으기로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400명의 후원자 밖에 모으질 못했다. 반면 베를린의 바그너 지지자들은 당시 새로운 제국의 수도가 된 베를린에서 바그너가 페스티벌을 열겠다면 바그너가 원하는 대로 예산에 관계없이 새로운 극장을 지어주겠다는 제의를 했지만, 바그너는 거절했다. 대도시에서 사교 생활의 하나로 극장을 들락거리는 질 낮은 관객들, 공연 중 잠이나 자는 예술을 모르는 사업가들이 자신의 작품공연을 보러오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자신이 거의 증오 하다시피 하는 파리오페라극장처럼 극장이 소수 부르조아 엘리트들을 위한 리조트로 전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부족한 기금은 루드비히 2세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가 10만 탈러라는 거금을 후원해줘서 건축가 고트프리트 쟈퍼가 디자인한 이 극장이 완공을 하게 된다.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은 바그너가 직접 감독 하에 자신의 작품이 공연되는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지은 것이다. 바그너는 애초 축제극장 입장권 가격을 일반 대중을 위하여 균등한 가격으로 책정하려 했지만 자신이 빛에 쪼들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바그너는 자신의 음악극을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 감상할 수 있도록 의도를 하면서 축제극장을 지었지만, 이 건립비용이 워낙 감당을 못할 정도였기에 바그너는 일단 자신이 진 빚을 다 갚은 후부터 본래 취지대로 실행하리라 마음을 먹었다. 도저히 실현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바그너의 원대한 꿈이 실현되어갔다. 바그너는 1874년 4월 가족들과 함께 하우스 반프리트(Haus Wahnfried)에 입주하게 된다. 바그너 자신이 명명한 'Wahnfried' 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그 의미가 '미혹으로부터의 자유(평화)'이다. 바그너는 예술, 특히 음악을 통해 미혹으로부터 평온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같은 해 11월 '신들의 황혼'을 완성함으로써 '지크프리트의 죽음'을 스케치한 때부터 거의 사반세기에 걸쳐 작곡한 '링 시리즈'를 드디어 완결 짓게 된다.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은 본래 1875년 시작하기로 했으나 축제극장 건립비용에 따른 재정난으로 1년 연기하여 1876년 8월13일 한스 리히터의 지휘로 '라인의 황금'이 공연되면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역사적인 막이 오르게 된다. '링 시리즈' 중 '라인의 황금'과 '지크프리트'는 뮌헨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지만, '링 시리즈' 4부 전체공연은 이때가 초연이었다. 초연은 완전히 '역사적인 이벤트'였다. 전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몰려든 언론인들, 루드비히 2세, 독일황제 빌헬름 1세와 브라질황제 돈 페드로 2세를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 철학자 니체, 작곡가 안톤 브루크너, 그리그, 차이콥스키, 리스트 등의 당시 유명한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공연에 대해 어떤 이들은 실망을 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열광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한결 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음악과 극장 공연 예술의 역사'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바이로이트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었다. 냉정하기로 정평이 나있던 쇼트출판사 사장 슈트레크(Ludwig Strecker)는 초연에 대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연이 일어났고, '나 역시 그 자리에 함께했다'고 말할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적고 있다. 마지막 4부 '신들의 황혼'이 끝나자 청중들은 극장이 무너질 듯 한 우레와 같은 박수와 열광을 보낸다. 훗날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바그너는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을 건립할 때부터 그 축제극장이 어떤 기능을 할지 알고 있었다. 바그너 음악 경배자들이 마치 성지를 순례하듯 오로지 음악을 듣기 위해 이곳을 찾아 참배할 거란 것을...". 첫째 페스티벌 뒤엔 재정적으로는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바그너 숭배 기류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어간다.

본래 '링 시리즈'은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에서만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첫 페스티벌의 적자와 이 페스티벌을 계속 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바그너는 런던, 라이프찌히, 베를린 등지에서 '링 시리즈' 공연하고 뮌헨시 측과 작품 로열티 협정을 맺는 등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바그너와 코지마-1872년〉



〈바그너 커리커처〉- Andre Gill 그림

#### 글 송종건

영국 런던 라반센터에서 무용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 「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기」, 「무용과 비평」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무용과 오페라) 발행인겸 작가로 활동 중이다.



# Performances

## 제2회 옥빛예술단 정기공연

일 시 | 1.16(목) 18: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사)좋은세상 만드는사람들

■ 공연개요  
한해가 시작되는 시기에 울산시민들에게 추운 겨울 따듯함을 전파하기 위하여 옥빛예술단이 마련한 공연

■ 작품내용  
- 현대무용, 재즈댄스, 창작극, 합창 등

## 가족뮤지컬 "미녀와 야수"

일 시 | 1.18(토) 11:00/14:00/16:00  
1.19(일) 13:00/15: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0,000  
주 최 | 극단 중원교회

■ 공연개요  
18C 프랑스 보몽부인의 작품 "미녀와 야수"를 각색하여 만든 뮤지컬로 어린이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내면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 줄 가족 뮤지컬

■ 작품내용  
장미 꽃잎이 다 떨어지기 전에 아름다운 미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평생 야수의 모습으로 살 수 밖에 없는 왕자.  
긴 세월이 흐른 어느날, 아름답고 착한 벨이라는 아가씨와 그의 아버지가 길을 잃고 헤매다 야수가 사는 마법의 궁전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 브레미야 챔버쏘사이어티 "하이든의 밤"

일 시 | 1.21(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브레미야 챔버쏘사이어티

■ 공연개요  
하이든의 곡으로 구성된 첼로 협주곡 2곡을 전곡 연주함

■ 작품내용  
- Streichquarlett No. 67 "Lerchen" OP 64-5  
- Hyden cello concert in D Major - J.Haydn  
- Hyden cello concert in C Major - J.Haydn

## 제7회 JCN 울산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22(수)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좋은날 음악기획

■ 공연개요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기량을 선보였던 JCN 울산 어린이합창단의 2014년 일곱번째 정기연주회로 세계 각국의 동요 및 소품곡과 전래동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

■ 작품내용  
- 세계 각국의 동요 및 소품곡  
- 세계 유명 어린이 합창곡  
- 한국 전래 동요 및 가곡

## 만원의 기적 - 희망나눔콘서트

일 시 | 1.22(수) 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  
주 최 | 문화예술기획 위드아트

■ 공연개요  
문화예술기획 위드아트가 주최하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자선공연

■ 작품내용  
- 위드아트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  
- 위드아트 4rest  
- 월성누키어린이합창단 공연 등

## 어린이 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일 시 | 1.25(토) 11:00/14:00/16:00  
1.26(일) 13:00/15: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5,000  
주 최 | 플러스기획

■ 공연개요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베스트셀러 "우리 아빠가 최고야"를 뮤지컬로 제작

■ 작품내용  
아리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엄마가 혼자 마트에 갔다. 게으름뱅이 방구쟁이 아빠랑 단 둘이 집에 남겨진 아리에게 아빠가 아리에게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하는데...

## 겨울음악 테마여행

일 시 | 1.28(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주)컬처인 피플

■ 공연개요  
USJ 챔버오케스트라 멤버들이 모여 만든 컬처인 피플 앙상블의 겨울 음악 테마 여행

■ 작품내용  
- 바이올린 솔로  
- 피아노 솔로  
- 첼로 솔로공연 등

##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일 시 | 2.08(토) 14:00/16:00  
2.09(일) 11:00/14: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VV/50,000 · V/40,000  
R/30,000 · S/20,000  
주 최 | 극단예일

■ 공연개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적인 소재와 감성을 지닌 작품으로 다양한 스토리 라인을 통해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동화 속 이야기를 화려한 춤과 노래로 보여주는 명작동화 뮤지컬

## 어린이 뮤지컬 "쿵구멍을 후비면"

일 시 | 2.08(토) 11:00/14:00/16:00  
2.09(일) 11:00/14:00/16: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0,000  
주 최 | 초록공간 문예기획단

■ 공연개요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는 소재를 뮤지컬로 극화해 논리적인 추리와 판단하기 시작하는 어린이의 사고력, 판단력, 관찰력을 키워주며 나쁜 생활 태도와 버릇을 고치는데 도움을 주는 뮤지컬

## Ark Flute Quartet + ONE

일 시 | 2.15(토) 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  
주 최 | Ark Ensemble

■ 공연개요  
바로크 시대의 음악부터 현재 음악까지의 다양한 음악을 플루트의 목가적인 면으로 바꿔 재해석하여 클래식적 편안함을 울산시민과 나누기 위함

■ 작품내용  
- Under The Double Eagle  
March J.F.Wagner  
- Antonio Vivaldi - concerto  
III "Il Gardellino" op.10 NO.3 등

## 2014 겨울 음악 페스티벌

일 시 | 2.16(일) 16: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한국피아노 지도자협회

### ■ 공연개요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하게 하기 위한 피아노 듀오 음악회

### ■ 작품내용

- 봄의 소리왈츠 (Johan Strauss)
- Merry Christmas, Mr. Lawrence (영화 '전장의 크리스마스')
- 인생의 회전목마(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 Liber tango (Astor Piazzoli)

## 울산 극동방송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일 시 | 2.18(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극동방송 청소년오케스트라

### ■ 작품내용

- 가브리엘 오보에
- 위풍당당행진곡
- 판당고
- 영화 '해리포터' OST
- 영화 '캐리비안해적' OST 등

## 제4회 극단홍강 정기공연 "세 마리의 눈먼 쥐"

일 시 | 2.21(금) 19:30  
2.22(토) 16:00/19:00  
2.23(일) 16:00/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10,000  
주 최 | 극단 홍강

### ■ 공연내용

추리소설의 여왕 아가사 크리스티의 <세마리의 눈 먼 쥐>는 인물의 심리 묘사와 함께 극적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통해 "관계"에 대한 성찰을 가질 수 있는 작품

### ■ 작품내용

한겨울 처음 개시한 여관에 차례로 찾아온 5명의 투숙객. 그날 밤 내린 폭설로 고립된 여인숙에 살인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형사가 찾아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되는데..

## 제5회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2.22(토)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남구소년소녀합창단

### ■ 공연내용

합창 및 오케스트라 공연을 통해 지방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울산시민과 남구민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 음악회

## 남구 구립교향악단 2월 신춘음악회

일 시 | 2.25(화)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남구구립 교향악단

### ■ 공연내용

- 클래식 및 합창음악을 통해 울산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 서곡 및 교향곡, 기악곡, 합창곡 등을 연주

## 제2회 울산모이즈 플루트 앙상블 연주회

일 시 | 2.25(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모이즈플루트앙상블

### ■ 공연내용

클래식 및 친숙한 대중곡들을 연주하여 플루트 연주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 ■ 작품내용

- Mozart concerto no. 1
- Chaminade concerto
- Irish Air
-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 Czardas 외

## 세계문화공연 제12기 Good New Corps Festival

일 시 | 2.26(수) 19:1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30,000  
주 최 | (사)국제청소년연합 울산지국

### ■ 공연내용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특별한 경험과 단원들이 체험한 진실한 사랑과 우정,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을 댄스와 편지, 체험담, 트루스토리

등으로 표현

### ■ 작품내용

- 식전행사 : 라이처스 스타즈 및 리오몬따냐 공연
- 1부 : 세계 문화 공연
- 2부 : 세계 문화 공연 및 트루스토리

## 제2회 울산CBS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2.27(목)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CBS소년소녀합창단

### ■ 공연내용

합창음악 보급과 지역 음악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8년에 창단하여 울산지역 초등학교 2학년부부터 중학교 1학년으로 구성된 울산CBS소년소녀합창단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 제9회 브레미아 챔버쏘사이어티 정기연주회

일 시 | 2.27(목)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브레미아 챔버쏘사이어티

### ■ 공연개요

브레미아 챔버쏘사이어티 아홉 번째 정기연주회로 실내악 중에서도 4중주, 5중주, 8중주의 곡을 연주

### ■ 작품내용

- Tango Ballet - A. Piazzolla
- Oktett op. 20 - Mendelssohn 등 다수

## 엄현숙 해금독주회

일 시 | 2.28(금)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엄현숙

### ■ 공연개요

한국 전통음악 국악중에서 해금의 소리를 궁중음악인 정악과 민속악인 산조, 퓨전음악들로 관객들에게 국악을 홍보하고자



# Exhibition

## 방송대에서 그려본 세계 사진전

기간 | 1. 3(금)~1. 8(수), 6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울산지역대학

■ 전시내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울산지역대학 내 사진동호회의 정기전으로 우리나라 세계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사진작품 35점 전시

## 제7회 울산매일사진동호회 회원전

기간 | 1. 10(금)~1. 15(수), 6일간  
장소 | 제1전시장  
주최 | 울산매일사진동호회 (박남규)

■ 전시내용  
울산매일사진동호회의 일곱 번째 정기 회원전으로, "울산의 아름다운 남구"를 주제로 촬영한 사진작품 100점 전시

## 제7회 좋은 사람들전

기간 | 1. 10(금)~1. 15(수), 6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좋은 사람들 (권영태)

■ 전시내용  
좋은 사람들의 제7회 정기전으로 1년간의 작품 활동을 결산하고 새로운 작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회원 30명의 서양화 작품 30점 전시

## 울산사진씨클연합회 초대 박재관 사진전

기간 | 1. 17(금)~1. 22(수), 6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울산사진씨클연합회

■ 전시내용  
박재관 작가의 평생동안 작업한 다큐멘터리 및 순수예술사진 50점 전시

## 제2회 대한민국 암각화 서예대전

기간 | 2. 5(수)~2. 10(월), 6일간  
장소 | 제1, 2, 3, 4전시장  
주최 | 우리글 써주기 운동본부

■ 전시내용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면서도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반구대 암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한 서예 문인화대전으로,

대상, 우수상, 특선, 입선 등 전국 단위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입상작품 300여점 전시

## 제5회 스튜디오블루 사진전

기간 | 2. 13(목)~2. 18(화), 6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Studio BLUE

■ 전시내용  
울산에 거주하는 사진가 모임인 'Studio BLUE' 멤버들이 회원들이 오랫동안 마음을 담아 촬영하여 각자의 주제와 개성을 표현한 사진작품 30점을 주제별로 전시

## 제2회 최상미 개인전

기간 | 2. 20(목)~2. 25(화), 6일간  
장소 | 제2전시장  
주최 | 개인 (최상미)

■ 전시내용  
꽃잎은 떨어져야 열매를 맺고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주제를 작가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재구성한 서양화 작품 35점을 전시

## 제3회 이경란 개인전

기간 | 2. 20(목)~2. 25(화), 6일간  
장소 | 제3전시장  
주최 | 개인 (이경란)

■ 전시내용  
"내 마음을 그리다"는 주제를 작가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구상하고 표현한 서양화 작품 50점 전시

## 문수 실버작품 전시회

기간 | 2. 27(목)~3. 4(화), 6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문수실버복지관

■ 전시내용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 50명의 한글 서예, 한문 서예, 사군자, 서양화, 동양화 등 총 50점의 작품과 차동조 명장 외 어르신 4명의 '부엉이&숫대진'의 작품 20점을 특별 전시

# 당신의 불링불링한 ART 스타일 완성!



Always,  
with you

비상 요일과 가정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것을  
가슴속에서 비추고 있는 것을  
문예회원이 예술가에게 함께 합니다.

## 문예회원에 가입하면 공연정보와 할인혜택이 솔솔~

### 회원의 종류

가입 기간	청소년회원	일반회원	가족회원 (4인기준)	단체회원 (10인기준)
1년	1만원	2만원	4만원	10만원 (1인추가시 1만원)
3년	2만5천원	5만원	10만원	25만원 (1인추가시 2만5천원)
5년	4만원	8만원	16만원	40만원 (1인추가시 4만원)
10년	7만5천원	15만원	30만원	75만원 (1인추가시 7만5천원)

###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셔야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비납부

- 인터넷 가입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울산문화예술회관  
농 협 317-8245-8245-41 / 울산문화예술회관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 회원혜택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회관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공연 30% 할인 (일반 2매, 가족 4매, 청소년·단체 1매)
  - 회원을 위한 특별기획공연 초대 (일반 2매, 가족 4매, 청소년·단체 1매)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이내 할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료 5%)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등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I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 하시면 빠른 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http://www.ucac.or.kr))를 방문하시면 친구 신청이 쉬워집니다.



김혜자의 모노드라마  
**오스카! 너에게  
보내는 편지**

---

2014. 2. 12(수) ~ 13(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